

전남도교육청 운영 '학교지원센터' 일선학교 교직원 업무경감 큰 효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
1974명 조사 만족도 크게 향상
전담기구 구성 업무 지원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시·군 교육지원청에 구축해 운영 중인 학교지원센터가 학교 업무경감과 업무지원 면에서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며 안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업무 경감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전면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센터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출범 뒤 1년 차인 2020년에 이어 최근 2021년 만족도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학교 업무경감 체감도와 업무지원 만족도가 모두 향상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9월6일부터 15일까지 10일 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전남의 유·초·중·고·특수학교·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1974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업무에 대해 높은 만족도(5점 만점에 4.34점)를 보여 학교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경감 체감도 역시 평균 3.8점으로 전년에 비해 상승(0.13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학교지원센터

업무지원 만족도가 지역별 차이 없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 지역이 19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업무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청에 학교업무 분석·지원 TF팀을 운영하고, 학교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는 부서를 초월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지원 전담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범미경 전남도교육청 혁신교육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로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교직원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학교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이공대 교직원들이 만든 연생리대 기부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 사회봉사단은 10일 오전 조선대여자중학교를 찾아 교직원들이 직접 만든 연생리대 64세트를 기부했다. 조선이공대 교직원들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대학 기봉홀에 모여 튼튼이 DIY 연생리대를 손수 제작했다. 이날 기부한 연생리대는 조선대여자중학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선이공대 제공>

동강대, 2년 연속 군 장학생 전국 최다 합격

동강대학교가 2년 연속 육군 군 장학생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며 최고의 군사학과 명성을 또 다시 입증했다.

동강대 군사학과(학과장 조동권)는 최근 육군 군 장학생 합격생 3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2021년 전국 대학생 1·2학년 대상 실시한 육군 군 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선발시험에서 1학년 15명, 2학년 17명 등 총 32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35명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다 합격자를 기록했고 특히 여학생 10명이 시험을 통과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게 됐다.

육군 군 장학생 최종합격자는 성적 외에도 '1년, 2년 전액 등록금 장학금'과 졸업 후 추가 시험 없이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해 육군하사(공무원 9급)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동강대는 국방부 정책사업인 22년도 육군부사관학군단(RNTC)을 광역시권 전문대학에서 최초로 유치했다.

군사학과는 2011년 개설 뒤 2014년과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도 육군본부 학사운영평가에서 육군본부 전국 최우수 군사학과로 평가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9년 연속 선정

24일까지 참여자 모집
초기창업 전 과정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사진)가 사회적기업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광주·전남권역 창업지원 기관에 9년 연속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초기창업팀을 모집해 ▲창업 공간 ▲창업자금 지원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원연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한 광주대는 이번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 사업내용에 따라 팀당 15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자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을 지속해 운영할 의사를 갖고 창업을 준비하는 초기창업팀이며,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창업팀이면 지원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3명 이상 팀을 구성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수창구 또는 광주대 사회적기업사업단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비대면 온라인(ZOOM)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13일 오후 2시 순천 ㈜꿈꾸는사람들 회의실(순

천시 호남길 81), 18일 오후 2시에는 광주대 인성관 2층 창업교육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제출서류, 창업팀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에 예약(062-670-2794)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광주대는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시작, 2015년과 2018년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우수지원기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2021년까지 총 131개의 창업팀을 육성, 인증 사회적기업 25개 팀을 비롯해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76개 팀을 배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이스포츠교육원 '1월 게이밍과정' 개강

광주이스포츠교육원(원장 정연철 호남대 e스포츠산업학과 교수)은 10일 '1월 게이밍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리그오브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종목의 기초/실전, 집중훈련, 프로준비반으로,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수강 신청을 받아 1월 28일까지 운영된다. 개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해당 종목의 전문 코치의 스크린 경기운영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별 게이밍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1월 과정부터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준비반도 개설됐다. 집중훈련반과 프로준비반은 수강생들의 훈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선수 관리 프로그램인 '딥롤'을 사용하고 동체시력 측정 및 개인상담을 체계화하여 수강생들의 성과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광주이스포츠교육원은 '아시아이스포츠산업교육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하며 수수료 80% 이상 출석률에 따라 수수료도 수여한다. /채희중 기자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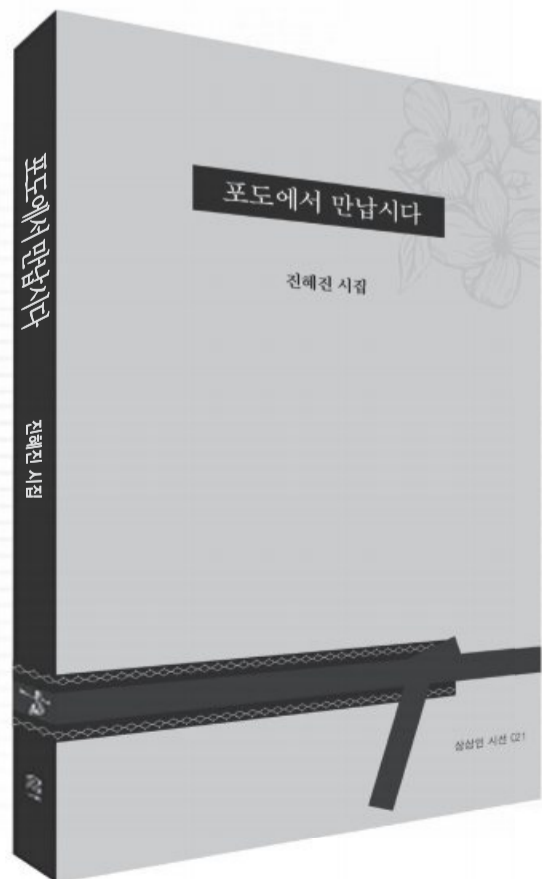
조선대 정외과-한국정치학회 '전문가 자격증 수여' 협약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사)한국정치학회가 정치학 전공 졸업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문가 자격증 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정치학의 적극적 역할에 공감하여 정치학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를 넓히고 전공생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치학 전공 졸업생에게 글로벌

시민교육전문가, 공공외교전문가, 선거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향후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은 세 가지 전문가 자격증과 관련된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설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한국정치학회가 2월과 8월 방학기간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과목을 추가 이수하면 한국정치학회가 발급하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